

<출제 문항 분석 및 총평>

| 대단원<br>분류   | 문항수와<br>비율 |     | 출제 영역  |                           |
|-------------|------------|-----|--------|---------------------------|
| 문법과<br>어문규정 | 5          | 25% | 고전 문법  | 훈민정음 제자원리의 이해(1)          |
|             |            |     | 현대 문법  | 사동과 피동(1)<br>올바른 문장(1)    |
|             |            |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1)<br>접미사 표기법(1)     |
| 비문학         | 8          | 40% | 독해     | 내용일치(2) 재배열(1)<br>내용이해(2) |
|             |            |     | 화법     | 의사소통 방식(1)<br>발화 의도(1)    |
|             |            |     | 작문     | 조건에 맞는 글쓰기(1)             |
| 문학          | 4          | 20% | 고전 문학  | 가전체(1)<br>판소리와 가사(1)      |
|             |            |     | 현대 문학  | 시(1) 소설(1)                |
| 어휘          | 3          | 15% | 한자     | 시조의 주제어(1)<br>한자어 표기(1)   |
|             |            |     | 기타     | 단어의 의미관계(1)               |

2018 지방직 9급 국어 문제는 비문학 영역이 8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이어 문법 5문항, 문학 4문항, 어휘 3문항이 출제되었다.

비문학의 경우 그간 공무원 시험의 독해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인 내용 일치나 이해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고, 역시나 익숙한 유형인 재배열 문제나 말하기 방식(의사소통 방식) 문제도 출제되었다. 이 가운데 체감 난도가 높았거나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문제는 2문항 정도이고, 나머지는 비교적 무난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법은 훈민정음 관련 고전 문법이 1문항, 현대문법에서는 문장론 2문항, 어문규정 2문항이 출제되었다. 대부분 문법 수업을 통해 중요하게 다룬 부분들이 출제된 것이라서 수험생들이 크게 낯선 느낌은 없었을 것이나, 혹여 큰 줄기만 공부하고 보다 정확하고 꼼꼼한 학습을 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는 답을 알 것 같으면서도 결국엔 확신 없이 혼동되는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학은 고전과 현대가 각각 2문항씩 출제되었는데, 고전문학의 경우는 <공방전>과 <탄궁가>, <흥보가>가 모두 문맥과 내용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어서 혹여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주어진 내용을 독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현대문학은 수험생들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시 <청노루>와 소설 <삼대>가 출제되었으며 선택지들도 문학 영역에서 자주 다루던 내용들이라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휘는 한자 표기 1문항, 시조의 주제어 찾기 1문항, 단어들의 의미 관계(다의어) 1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정철의 <훈민가>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주제어를 찾는 한자 문제가 수험생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자어의 표기 문제는 비교적 쉬운 단어가 출제되었고, 다의어 문제도 문맥적 의미를 고려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서 크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어는 학습법을 달리해야 하는 여러 영역들의 집합체이다. 합격점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한 영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위험하므로, 비문학은 비문학에 맞는 최적의 학습법, 문법은 문법에 맞는 최적의 학습법을 따라 꾸준히 배우고 연습하며 점수를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문학과 한자는 절대 하루아침에 실력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모든 성실성을 끌어 모아 꾸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수험생 여러분! 시험 치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문제가 어려웠든 쉬웠든 뒤돌아보는 건 잠시 멈추시고, 오늘은 고생한 스스로에게 애정 어린 힘을 잠깐이나마 선물하세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서울시 지방직 시험을 위해 달려 봅시다. 모든 건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경험은 실력이 됩니다. 저의 힘껏, 여러분에게 합격의 기운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답 해설>

문 1.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어 가며 여행 계획을 설명하였다.

- ① 이마를 짚어 보니 열이 있었다.
- ② 그는 두 손으로 땅을 짚어야 했다.
- ③ 그들은 속을 짚어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 ④ 시험 문제를 짚어 주었는데도 성적이 좋지 않다.

1. <정답> 4번

<출제 범위> 단어의 의미 관계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어’에서 ‘짚어’는 동사 ‘짚다’의 활용형으로 ‘여럿 중에 하나를 꼭 집어 가리키다.’의 의미로 쓰였다. 이와 유사한 것은 ④ ‘시험 문제를 짚어 주었는데도~’의 ‘짚어’이다.

<오답 해설>

- ① 이마를 짚어 보니: 손으로 이마나 머리 따위를 가볍게 눌러 대어
- ② 두 손으로 땅을 짚어야: 바닥이나 벽, 지팡이 따위에 몸을 의지하여
- ③ 그들은 속을 짚어 낼 수가 없는: 상황을 헤아려 어떡할 것으로 짐작하여

※ 짚다 [동사]

「1」 바닥이나 벽, 지팡이 따위에 몸을 의지하다.

예 지팡이를 짚다. / 손으로 땅을 짚다.

「2」 손으로 이마나 머리 따위를 가볍게 눌러 대다.

예 맥을 짚다. / 손으로 아마를 짚어 보다.

「3」 여럿 중에 하나를 꼭 집어 가리키다.

예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다. / 시험 문제를 짚어 주다.

「4」 상황을 헤아려 어떠한 것으로 짐작하다.

예 헛다리를 짚다. / 남의 마음을 짚다.

문 2. 사동법의 특징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 ① 그는 김 교수에게 박 군을 소개시켰다.
- ②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아이를 입원시켰다.
- ③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시킨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 ④ 우리는 토론을 거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켰다.

2. <정답> 2번

<출제 범위> 이론문법 - 통사론(사동과 피동)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사동법의 특징’을 기준으로 답을 찾아야 하는데,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시키다’의 형태이다. 그렇다면 과도한 사동표현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알고 풀어야 한다. ‘-하다’의 형태가 가능한 말을 ‘-시키다’로 표현할 경우는 잘못된 사동 표현이므로 ‘-하다’로 고쳐야 한다.

② ‘아이를 입원시키다’만 올바른 표현이다. ‘아이를 입원하다’로 고치면 오히려 어색해진다.

<오답 해설>

나머지는 모두 ‘-시키다’를 ‘-하다’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잘못된 형태이다.

- ① 박 군을 소개시켰다(×) → 박 군을 소개하였다(했다)
- ③ 타인을 설득시킨다는(×) → 타인을 설득한다는
- ④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켰다(×)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

문 3. 밑줄 친 부분의 이유에 대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관리가 본디부터 간악한 것이 아니다. 그들을 간악하게 만드는 것은 법이다. 간악함이 생기는 이유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 대체로 직책은 하찮은데도 재주가 넘치면 간악하게 되며, 지위는 낮은데도 아는 것이 많으면 간악하게 되며, 노력을 조금 들였는데도 효과가 신속하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교체되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의 행동이 또한 정도에서 나오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아래에 자신의 무리는 많은데 위사람이 외롭고 어리석으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약하여 두려워하면서 잘못을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게 되며, 자신이 꺼리는 사람이 같이 죄를 범하였는데도 서로 버티면서 죄를 밝히지 않으면 간악하게 된다. …… 간악함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대체로 이러하다.

- ① 노력은 적게 들이고 성과를 빨리 얻는다.
- ② 자신이 범한 과오를 감추고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
- ③ 자신은 같은 자리에 있으나 감독자가 자주 교체된다.
- ④ 자신의 세력이 밑에서 강한 반면 상부는 외롭고 우매하다.

3. <정답> 2번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내용 일치)

<난이도> 하

<정답 해설>

내용과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내면 되는 문제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지의 내용이 포함된 본문의 문장만 찾아주면 되는 문제이다.

제시된 글에서 언급한 간악함이 생기는 이유를 순서대로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직책은 하찮은데도 재주가 넘치면
  - (2) 지위는 낮은데도 아는 것이 많으면
  - (3) 노력은 조금 들였는데도 효과가 신속하면(선택지 ①)
  - (4) 자신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데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교체되면(선택지 ③)
  - (5)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의 행동이 또한 정도에서 나오지 않으면
  - (6) 아래에 자신의 무리는 많은데 위사람이 외롭고 어리석으면(선택지 ④)
  - (7)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약하여 두려워하면서 잘못을 밝히지 않으면
  - (8) 자신이 꺼리는 사람이 같이 죄를 범하였는데도 서로 버티면서 죄를 밝히지 않으면
  - (9) 형벌에 염치가 없고 원칙이 확립되지 않으면
- 선택지 ②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문 4.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머언 산 청운사  
남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열두 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 박목월, 「청노루」 -

- ① 사건 발생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재가 배열되고 있다.
- ② 시적 공간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겨오고 있다.
- ③ 이상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 ④ 묘사된 자연이 상상적, 허구적이다.

4. <정답> 1번

<출제 범위> 현대 시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박목월의 <청노루>는 '청운사(푸른 구름의 절)'와 '자하산(자줏빛 노을의 산)'으로 표현된, 현실과 먼 신비한 느낌의 이상적 세계(탈속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간결한 리듬과 압축적 표현으로 나타낸 작품이다. 시선의 이동에 따라 '머언 청운사(원경)'에서 '청노루 맑은 눈(근경)'으로 시상이 전개되며, 동적인 이미지('열두 굽이'로 흐르는 물)와 정적인 이미지(노루 눈동자에 '도는 구름')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어디에도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 발생, 즉 서사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② '머언 산 청운사'로 시작하는 원경(遠景)에서 '청노루 맑은 눈'으로 표현된 근경(近景)으로 옮겨 왔다.
- ③ 작품의 시작 부분부터 탈속적 정취를 보여주고, 청노루가 살고 있는 숲 속을 배경으로 하여, 시 전체가 이상적인 자연의 세계 혹은 탈속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화자는 그런 자연을 동경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청운사(靑雲寺)', '자하산(紫霞山)'에서 푸른 구름이나 자줏빛 노을의 이미지는 환상적이고 허구적인(현실적이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다.

문 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공방(孔方)의 자는 관지(貫之, 께미)이다. …… 처음 황제(黃帝) 때에 뽑혀 쓰였으나, 성질이 굳세어 세상일에 그리 익숙하지 못하였다. 황제가 ㉡ 관상을 보는 사람[相工]을 불러 보이니, 그가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말했다. “산야(山野)의 성질이어서 비록 쓸 만하지 못하오나, 만일 만물을 조화하는 폐하의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놀아 때를 굵고 빛을 갈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 왕자(王者)는 사람을 그릇[器]으로 만듭니다. 원컨대 ㉢ 폐하께서는 저 완고한 구리[銅]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다.

- ① ㉠은 ㉢의 결정에 의해 세상에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 ② ㉡은 ㉠의 단점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 ③ ㉢은 ㉡에게 자신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하였다.
- ④ ㉢은 ㉢의 이상적인 모습을 본받고 있다.

5. <정답> 3번

<출제 범위> 고전 산문 - <공방전>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제시된 글은 임춘의 <공방전>이며, <국순전>과 함께 문헌상 최초의 가전체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돈(葉錢)을 의인화하여 돈을 우선시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본문에 밑줄 친 인물들에 대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공방(孔方): 葉錢(돈)을 의인화 존재. 주인공.

㉡ 관상을 보는 사람: 공방을 보고 “폐하의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놀아 때를 굵고 빛을 갈면(폐하께서 공방을 다듬어 그가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만드시면)” 세상에 공방의 자질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여 공방을 취하도록 왕에게 권한 인물.

㉢ 왕자(王者): ‘임금’ 혹은 ‘왕도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특정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왕(王)을 가리킴.

㉣ 폐하: 관상 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실제 왕.

따라서 ‘왕자(王者)’는 특정인이 아닌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일반적 명칭이므로 관상 보는 이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관상을 보는 사람’이 ‘폐하’에게 ‘공방’을 갖고 닦으면 그 능력을 쓸 수 있을 것이라 권하여 ‘폐하’는 그 말을 듣고 공방을 버리지 않기로 결정하여 공방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 맞다.

② ‘관상을 보는 사람’은 ‘공방’의 현재 모습인 ‘쓸 만하지 못한 산야의 성질’ 대신 앞으로 갈고 닦을 경우 나타날 공방의 자질을 보고 ‘폐하’에게 공방을 취할 것을 권하였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④ ‘폐하’는 사람을 그릇으로 만드는 ‘왕자(王者)’의 바람직한 모습을 따르고자 ‘공방’을 택하여 다듬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문 6.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가) 생명체들은 본성적으로 감각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에는 감각으로부터 기억이 생겨나지 않는 반면 일부의 경우에는 생겨난다. 그리고 그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생명체들은 기억 능력이 없는 것들보다 분별력과 학습력이 더 뛰어난데, 그중 소리를 듣는 능력이 없는 것들은 분별은 하지만 배움을 얻지는 못하고, 기억에 덧붙여 청각 능력이 있는 것들은 배움을 얻는다.
- (나) 앞에서 말했듯이, 유경험자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기술자는 유경험자들보다 더 지혜로우며, 이론적인 지식들은 실천적인 것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어떤 원리들과 원인들에 대한 학문적인 인식임이 분명하다.
- (다) 하지만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필요 때문에, 어떤 것들은 여가의 삶을 위해서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후자의 기술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전자의 기술들을 발견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인식은 유용한 쓰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종류의 모든 발견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 여가의 즐거움이 나 필요,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학문들이 발견되었으니, 그 일은 사람들이 여가를 누렸던 여러 곳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집트 지역에서 수학적인 기술들이 맨 처음 자리 잡았으니, 그곳에서는 제사장(祭司長) 가문이 여가의 삶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 (라) 인간 종족은 기술과 추론을 이용해서 살아간다. 인간의 경우에는 기억으로부터 경험이 생겨나는데, 그 까닭은 같은 일에 대한 여러 차례의 기억은 하나의 경험 능력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험은 학문적인 인식이나 기술과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학문적인 인식과 기술은 경험의 결과로서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것이다. 그 까닭은 폴로스가 말하듯 경험은 기술을 만들어 내지만, 무경험은 우연적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기술은, 경험을 통해 안에 쌓인 여러 관념들로부터 비슷한 것들에 대해 하나의 일반적인 관념이 생겨날 때 생긴다.

- ① (가) - (다) - (나) - (라)  
 ② (가) - (다) - (라) - (나)  
 ③ (가) - (라) - (나) - (다)  
 ④ (가) - (라) - (다) - (나)

6. <정답> 4번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재배열 유형)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재배열 문제는 선지를 먼저 보고 순서를 정해야 한다. 모든 선

지가 (가)부터 시작되고 있으므로, (가)를 맨 앞에 놓고, 뒤에 이어질 것으로 (다)와 (라) 중에 하나를 먼저 고르면 된다. (가)는 생명체들을 감각으로부터 기억이 생겨나지 않는 것과 생겨나는 것으로 나누고, 기억이 생겨나는 경우에는 청각 능력이 있을 때 배움을 얻는다고 했다.

이어져 할 내용 중 (다)는 ‘하지만’으로 시작하여,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여가의 삶을 위한 기술을 발견한 사람들이 생활의 필요 때문에 기술을 발견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여겨진다고 했다. (라)는 ‘인간은 기억으로부터 경험이 생겨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경험의 결과로 기술이 생긴다고 서술했다. (다), (라) 중 더 먼저 와야 할 것은 ‘기술의 발생’을 이야기한 (라)이며, 그 뒤에 발생한 기술 중에서도 필요에 따른 것과 여가를 위한 것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이어져야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가) 뒤에 (라)가 놓이는 것이 맞고, 그 뒤에 (나), (다) 중 하나가 이어져야 한다. (나)는 ‘앞에서 말했듯이’로 시작하여 감각 있는 자보다 경험 있는 자, 경험 있는 자보다는 기술자가 더 지혜로우며, 이론적 지식이 실천적인 것보다 더 지혜롭다는 내용으므로 (다)에서 지혜롭게 여겨지는 지식에 대해 언급한 뒤에 ‘앞에서 말했듯이’ 지혜는 이런 것이라고 서술한 (나)의 내용이 이어지면 알맞다.

문 7.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되새김 동물인 무스(moose)의 경우, 위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게 하려면 움직여서는 안 된다. 무스의 위는 네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에서 나뭇잎, 풀줄기, 잡초 같은 섬유질이 많은 먹이를 소화하려면 꼼짝 않고 한곳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 남서부의 사막 지대에 사는 갈퀴발도마뱀은 모래 위로 눈만 빼꼼 내놓고 몇 시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있으면 따뜻한 모래가 도마뱀의 기운을 복돋아 준다. 곤충이 지나가면 도마뱀이 모래에서 나가 잡아먹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것이다. 반대로 갈퀴발도마뱀의 포식자인 뱀이 다가오면, 그 도마뱀은 사냥할 기운을 얻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경험을 되살려 호흡과 심장 박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죽은 시늉을 한다. 갈퀴발도마뱀은 모래 속에 몸을 묻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수분의 손실을 줄이고 사막 짐승들의 끊임없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 ① 갈퀴발도마뱀은 모래 속에 몸을 묻을 때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② 갈퀴발도마뱀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먹이를 구한다.  
 ③ 무스는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 식물을 가려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④ 무스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7. <정답> 3번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내용 일치)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식물을 가려먹는 습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답 해설>

- ① “모래 속에 몸을 묻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 사막 짐승들의 끊임없는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서술에 드러난다.
- ② “모래 위로 눈만 빼꼼 내놓고 몇 시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는다 ..... 곤충이 지나가면 도마뱀이 모래에서 나가 잡아먹을 수 있도록”이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다.
- ④ “위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게 하려면 움직여서는 안 된다. 섬유질이 많은 먹이를 소화하려면 꼼짝 않고 한곳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서술에서 드러난다.

(가)는 판소리 <흥부가>의 한 대목이고, (나)는 정훈의 가사 <탄궁가>의 일부분이다. 제시된 <흥부가>의 대목은 몹시 가난한 흥부의 형편을 다소 과장적이고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탄궁가>는 가난한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걱정과 체념을 드러내고 있다.

판소리를 읽을 때보다 4음보율의 정형시인 가사를 읽을 때 리듬이 규칙적인 것은 맞다.

<오답 해설>

- ② (가)는 과장적으로 (나)는 사실적으로 가난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제시된 부분에서는 두 작품 모두 가난한 상황을 운명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단, <탄궁가>는 문제에 제시되지 않은 작품의 결사 부분에 가난을 수용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④ (가)는 해학적으로 가난한 현실을 표현하였지만 그것이 가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나)는 사실적으로 가난한 현실을 표현하고 앞날에 대한 막막함을 드러내어 가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8. (가)와 (나)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문밖에 가랑비 오면 방 안은 큰비 오고 부엌에 불을 때면 천장은 굴뚝이요 흙 떨어진 외대궁기 바람은 살 쓴 듯이 들이불고 틀만 남은 흰 문짝 멍석으로 창과 문을 막고 방에 반듯 드러누워 가만히 바라보면 천장은 하늘별자리를 그려놓은 그림이요, 이십팔수(二十八宿)를 세어본다. 이렇게 곤란이 더욱 심할 제, 철모르는 자식들은 음식 노래로 조르는데, 아이고, 어머니! 나는 용미 봉탕에 잤죽 좀 먹었으면 좋겠소.

(나) 한 달에 아홉 끼를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누공(顔瓢屢空)인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심할까.  
봄날이 길고 길어 소쩍새가 재촉커늘  
동쪽 집에 따비 얻고 서쪽 집에 호미 얻어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어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붙였거늘  
많고 많은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 외대궁기: 나뭇가지 등으로 엮어 흙을 바른 벽에 생긴 구멍  
안표누공(顔瓢屢空): 공자(孔子)의 제자 안회(顔回)의 표주박이 자주 빔  
원헌(原憲): 공자의 제자

- ① (가)와 달리 (나)는 읽을 때의 리듬이 규칙적이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현재의 상황을 운명으로 수용하고 있다.
- ④ (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나)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8. <정답> 1번

<출제 범위> 고전문학 - 판소리와 가사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문 9. 다음 시조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스라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못 못하면  
마소를 갓 고깔 씌워 밥 먹이나 다르랴

- ① 鄉閭有禮                      ② 相扶相助  
③ 兄友弟恭                      ④ 子弟有學

9. <정답> 1번

<출제 범위> 고전 문학-시조

<난이도> 상

<정답 해설>

제시된 시조는 정철의 연시조 <훈민가> 중 여덟 번째 수이다. 마을 사람들에게 옳은 일(예를 갖추는 것)을 할 것을 권장하며, 사람이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나 소에게 갓과 고깔을 씌워 밥을 먹이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고 하여,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예(禮)에 대해 강조한 내용이다. 이것은 마을(고을)은 예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鄉閭有禮(향려유례)’와 통한다.

<오답 해설>

- ② 相扶相助(상부상조): 서로서로 도움.
- ③ 兄友弟恭(형우제공): 형제끼리 우애가 깊음.
- ④ 子弟有學(자제유학): 자녀는 가르쳐야 함.

문 10. ㉠, ㉡에 들어갈 한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근무 여건이 개선( ㉠ )되자 업무 효율이 크게 올랐다.  
○ 금융 당국은 새로운 통화( ㉡ ) 정책을 제안하였다.

- |      |    |
|------|----|
| ㉠    | ㉡  |
| ① 改選 | 通貨 |
| ② 改善 | 通話 |
| ③ 改選 | 通話 |
| ④ 改善 | 通貨 |

10. <정답> 4번

<출제 범위> 어휘 - 한자어의 표기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여건의 개선’에서 ‘개선’은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든다는 의미로 써야 하므로 ‘改善 고칠(개) 착할(선)’으로 적는다.

‘새로운 통화 정책’의 ‘통화’는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를 의미하므로 ‘通貨 통할(통) 물품(화)’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 改選 고칠(개) 가릴(선): 의원이나 임원 등이 사퇴하거나 그 임기가 다 되었을 때 새로 선출함.
- 通話 통할(통) 말할(화): 전화로 말을 주고받음.

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 이때 단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생기면 동조의 정도는 급격히 약화된다.

- ① 영희: 줄 서기의 경우,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그 줄 뒤에 설 확률이 더 높아.  
② 철수: 특히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 항거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야. 이런 경우, 동조 압력은 더 강할 수밖에 없겠지.  
③ 갑순: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매한 조직의 결속력보다 개인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④ 갑돌: 아침에 수많은 정류장 중 어디에서 공항버스를 타야 할지 몰랐는데 스튜어디스 차림의 여성이 향하는 정류장 쪽으로 따라갔었어. 이 경우, 그 스튜어디스 복장이 신뢰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겠네.

11. <정답> 3번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내용 이해)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제시된 글에 따르면 ‘동조’는 개인이 자기 자신의 판단이나 신념을 따르기보다는 집단이나 다수의 사람들을 따라가려는 심리적 작용임을 알 수 있다. 또 첫 단락에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동조를 하게 된다.”라고 서술하였으므로 동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개인의 신념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첫 번째 단락에서 서술한 동조의 첫 번째 이유인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면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② 첫 번째 단락에서 서술한 동조의 두 번째 이유인 힘을 가진 “집단의 압력 때문에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응집력이 강한 집단일수록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개인은 동조하게 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④ 두 번째 단락에서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지위,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도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서술한 것과 관련이 있다.

문 11. 다음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심리학에서는 동조(同調)가 일어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사람들은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면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어떤 집단이 그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질서나 규범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집단의 압력 때문에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개인이 그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집단에서 배척당하기 쉽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동조를 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신이 믿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조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조는 개인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수록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거나 그 결속력이 강할 때,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지위,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도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만장일치 여부도 동조에 큰 영

문 12. 다음 대화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사: 동아리 보고서를 오늘까지 내라고 하지 않았니?  
 학생1: 네, 선생님. 다정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교사: 이거, 큰일이네. 오늘이 마감인데.  
 학생1: 그러게요. 큰일이네요. 다정이가 집에도 없는 것 같아요.  
 학생2: 어떡해? 다정이 때문에 우리 모두 점수 깎이는 거 아니야? 네가 동아리 회장이니까 네가 책임져.  
 학생1: 아니, 뭐라고? 다정이가 보고서 작성하기로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거잖아.  
 교사: 자, 그만들 해. 이럴 때가 아니잖아. 어서 빨리 다정이한테 연락이나 해 봐. 지금 누구 잘못을 따질 상황이 아니야.  
 학생3: 제가 다정이 연락처를 아니까 연락해 볼게요.

- ① 교사가 권위적인 태도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 ② 학생1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있다.
- ③ 학생2가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끼어들어 책임을 언급함으로써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 ④ 학생3이 본질과 관계없는 말을 언급함으로써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12. <정답> 3번

<출제 범위> 비문학 - 화법

<난이도> 하

<정답 해설>

대화의 핵심은 오늘까지 제출해야 할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다정이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학생2'는 '동아리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갑작스러운 말을 하여 맥락에도 맞지 않고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

문 13. 화자의 진정한 발화 의도를 파악할 때, 밑줄 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일상 대화에서는 직접 발화보다는 간접 발화가 더 많이 사용되지만, 그 의미는 맥락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화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간접 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 ① (친한 사이에서 돈을 빌릴 때) 돈 가진 것 좀 있니?
- ② (창문을 열고 싶을 때) 애야, 방이 너무 더운 것 같구나.
- ③ (갈림길에서 방향을 물을 때) 김포공항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 ④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고 독려할 때) 우리 반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을 아주 잘 듣습니다.

13. <정답> 3번

<출제 범위> 비문학 - 화법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주어진 글에서는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접발화가 맥락에 의해 파악된다고 했으므로,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찾으면 간접발화가 아닌 것, 즉 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직접발화를 찾으면 된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물어보는 것은 직접발화이다.

<오답 해설>

- ① 직접발화로는 "돈 좀 빌려줘."라고 해야 하지만 간접적으로 가진 돈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것은 진짜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면 좀 빌려달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내포한 것이다.
- ② 직접발화로는 "창문 좀 열어 줘."라고 해야 하지만, 방이 더운 말로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고 그것으로 미루어 상대가 창을 열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간접발화이다.
- ④ 직접발화로는 "모두들 과제를 해 와라."라고 해야 하지만, 선생님 말씀을 아주 잘 듣는다고 추어주며 학생들이 다 해오도록 간접적으로 종용하고 있다.

문 14.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 사람은 아무래도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야.  
 지난번 해일이 밀어닥칠 때 집채만 한 파도가 해변을 덮쳤다.
- ② 저 집은 부부 간에 금실이 좋아.  
 집을 살 때 부모님이 얼마간을 보태 주셨어.
- ③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게.  
 지금 네가 본 것은 실상의 절반에도 못 미쳐.
- ④ 졸지에 부도를 맞았다니 참 안됐어.  
 그렇게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돼.

14. <정답> 2번

<출제 범위> 어문규범 - 한글맞춤법(띄어쓰기)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일반적으로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간'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맞지만, '부부간, 동기간, 부자간, 모녀간' 등의 몇몇 한자어들은 합성어로 사전에 등재되었으므로 한 단어로 붙여 쓴다. 따라서 '부부∨간에(X)'는 '부부간에'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얼마간'은 '그리 많지 아니한 수량이나 정도'를 뜻하는 명사이므로 하나의 단어가 맞다.

<오답 해설>

- ① '믿을∨만한'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며, 여기서 '만한'은 보조용언을 이루는 구조이므로 서로 붙여 쓰는 것이다. 그러나 '집채만∨한'은 비교 구문이므로 조사 '만'과 동사 '한'을 서로 띄어 쓰는 것이다.

- ③ '아무것'은 명사이므로 붙여 쓰고, '못√미쳐'는 못 부정문이므로 부정 부사 '못'을 띄어 쓰는 것이다.  
④ '참 안됐어'의 '안되다'는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는 의미의 형용사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고, '처리하면 안 돼'의 '안√돼'는 안 부정문이므로 부정 부사 '안'을 띄어 쓰는 것이다.

문 15. 어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철 내에서 뛰지 말고,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 '열다'는 타동사이므로 '강제로'와 '열려고' 사이에 목적어 '문'을 보충하여야 한다.  
② ○○사에서 급증하는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지 생활용수가 급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급증하는 생활용수의 수요에 대응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로 고쳐야 한다.  
③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 '사고 원인 파악을 마련하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앞의 명사구를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로 고쳐 절과 절의 접속으로 바꾸어야 한다.  
④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 서류 등을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할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 '하되'는 앞뒤 문장의 내용을 연결하는 어미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하며'로 고쳐야 한다.

15. <정답> 4번

<출제 범위> 문법 - 통사론(올바른 문장)

<난이도> 중

<정답 해설>

고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는 ~를 원칙으로 한 뒤, ~할 경우 ~함.'에서 '하되'는 어떤 사실(~를 원칙으로 한다)을 서술하면서 그와 관련된 조건이나 세부 사항(~할 경우에는 ~함)을 뒤에 덧붙이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되'를 사용한 것이므로 문맥에 맞게 쓰인 것이다.

문 16.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나) 제19항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다)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라) 제20항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① (가): 미달이, 졸음, 익히  
② (나): 마개, 마감, 지붕  
③ (다): 옥손이, 집집이, 곰배팔이  
④ (라): 끄트머리, 바가지, 이파리

16. <정답> 2번

<출제 범위> 어문규정 - 한글맞춤법(접미사 표기법)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나) 규정의 조건은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 접미사가 붙을 때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택지에 제시된 단어 중 '지붕'의 경우는 어간이 아닌 명사 '집'에 접미사 '-음'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잘못된 예에 해당한다. '마개'나 '마감'은 모두 용언 '막다'의 어간 '막-'에 각각 접사 '-애'와 '-암'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맞는 예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가) 용언의 어간 + -이/-음/-히: 미달이 ⇨ 밀(다) + 달(다) + -이, 졸음 ⇨ 졸(다) + -음, 익히 ⇨ 익(다) + -히  
③ (다) 명사 + -이: 옥손이 ⇨ 옥손 + -이, 집집이 ⇨ 집집 + -이, 곰배팔이 ⇨ 곰배팔 + -이  
④ (라) 명사 + 모음 접미사: 끄트머리 ⇨ 끝 + -으머리, 바가지 ⇨ 박 + -아지, 이파리 ⇨ 잎 + -아리

문 17. 발음 기관에 따라 '아음(牙音)', '설음(舌音)', '순음(唇音)', '치음(齒音)', '후음(喉音)'으로 구별하고 있는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를 참조할 때, 다음 휴대 전화의 자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 ㄱ ㅋ | ㅣ ㅡ | ㅏ ㅑ |
| ㄷ ㅌ | ㄴ ㄹ | ㅓ ㅕ |
| ㄴ ㄷ | ㅂ ㅍ | ㅗ ㅛ |
| ㅈ ㅊ | ㅇ ㅎ | ㅜ ㅠ |

- ①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서 'ㅇ'과 'ㅎ'은 구별되었다.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른다면, 이 중에서 'ㅇ'은 'ㄱ ㅋ'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② 'ㄷ ㅌ'과 'ㄴ ㄹ' 칸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적용된 가획 등의 원리에 따른 제자 순서보다 소리의 유사성을 중시하여 배치한 것이다.  
③ 'ㄴ ㄷ' 칸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의 양면을 모두 고려하여 같은 성질의 소리끼리 묶은 것이다.  
④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른다면, 'ㅈ'은 'ㅈ ㅊ'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17. <정답> 3번

<출제 범위> 문법 - 고전문법(훈민정음) + 음운론

<난이도> 중

<정답 해설>

‘ㅁ’은 순음(唇音)으로, 조음 위치로는 입술소리에 해당하고 조음 방식으로는 비음에 해당한다.

‘ㅅ’은 치음(齒音)으로, 조음 위치로는 치조음 혹은 혀끝소리에 해당하며 조음 방식으로는 마찰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음운의 성질이 같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 <오답 해설>

① ‘ㅇ’은 후음(喉音)이며, ‘ㅇ(엠티음)’은 아음(牙音)으로 구별되었고, ‘ㅇ(엠티음)’의 경우는 ‘ㄱ’의 이체자이므로 ‘ㄱㅇ’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② ‘ㄷㅌ’과 ‘ㄴㄹ’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 적용된 가획 등의 원리에 따른 제자 순서를 기준으로 배치한다면 ‘ㄴ, ㄷ, ㅌ’의 배열 순서를 적용해야 맞고, ‘ㄹ’은 이체자이므로 따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서를 따르지 않고 ‘ㄷ, ㅌ’과 ‘ㄴ, ㄹ’을 함께 배치한 것은 각각 안울림소리(파찰음)과 울림소리라는 소리의 유사성을 중시한 배치가 맞다.

④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서 ‘ㅅ’은 치음(齒音)으로, ‘ㅈㅊ’의 기본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칸에 함께 배치할 수 있다.

#### 18. <정답> 1번

<출제 범위> 현대문학 - 소설

<난이도> 중

#### <정답 해설>

염상섭의 <삼대>는 1930년대 서울의 중산층 가문을 중심으로 한 세대 간의 갈등과 현실적 몰락을 보여주는 장편 소설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개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인물의 내면을 모두 보여줄 수 있으므로, 어떤 인물의 시선에서든 이야기를 그려내는 것이 가능하다. <삼대> 역시 전개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나 장면에 대해 서술하기 가장 좋은 인물의 시선을 빌려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제시된 부분에서는 ‘덕기’의 시선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오답 해설>

②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면서 주제 의식을 강화할 만한 어휘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덕기의 시선을 빌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서술자의 주관적 견해인 편집자적 논평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제시된 부분의 공간적 배경은 ‘집’이며, 서술자는 덕기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뿐 달라지지 않는다.

#### 문 18. 다음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덕기는 분명히 조부의 이런 목소리를 들은 법하다. 꿈이 아니었던가 하며 소스라쳐 깨어 눈을 떠보니 머리맡 창에 별이 뽀뽀히 비친 것이 어느덧 저녁때가 된 것 같다. 벌써 새로 세시가 넘었다. 아침 먹고 나오는 길로 따뜻한 데 누웠으려니까 잠이 폭폭 왔던 것이다. 어쨌든 머리를 쳐드니, 인제는 거뜬하고 몸도 풀린 것 같다.

“네 처두 목으라고 하였다만 모레는 너두 들를 테냐? 들르면 무얼 하느냐마는…….”

조부의 못마땅해하는, 어떻게 들으면 말을 만들어 보려고 짓궂이 비꼬는 강강한 어투가 또 들린다.

덕기는 부친이 왔나 보다 하고 가만히 유리 구멍으로 내다보았다. 수달피 깃을 댄 검정 외투를 입은 훌쭉한 뒷모양이 뜰을 격하여 뒷마루 앞에 보이고 조부는 창을 열고 내다보고 앉았다. 덕기는 일어서려다가 조부가 문을 닫은 뒤에 나가리라 하고 주저앉았다.

“저야 오지요마는 덕기는 불드실 게 무엇 있습니까. 공부하는 애는 그보다 더한 일이 있더라도 날짜를 대서 하루바삐 보내야지요…….”

이것은 부친의 소리다. 부친은 가냘프고 신경질적인 체격 보아서 목소리라든지 느리게 하는 어조가 딱 탄탄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 염상섭, 「삼대」 -

- 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선을 빌려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②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어휘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③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들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 문 19. 다음 조건을 모두 참조하여 쓴 글은?

- 대구(對句)의 기법을 사용할 것
- 삶에 대한 통찰을 우의적으로 표현할 것

① 낙엽: 낙엽은 항상 패배한다. 시간이 지나고 낙엽이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계절의 객석에 슬픔과 추위가 찾아온다. 하지만 이 패배가 없더라면, 어떻게 봄의 승리가 가능할 것인가.

② 비: 프랑스어로 ‘비가 내린다’는 한 단어라고 한다. 내리는 것은 비의 숙명인 것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토끼는 깡충깡충 뛰다. 자연은 모두 한 단어이다. 우리의 삶도 자연을 닮는다면 어떨까.

③ 하늘: 하늘은 언젠가 자기 얼굴이 알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자신을 비춰줄 만큼 큰 거울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소녀를 발견했다. 포근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소녀의 눈동자를 하늘은 바라보았다. 거기에 자신이 있었다.

④ 새: 높이 나는 새는 낮게 나는 새를 놀려 댔다. “어째서 그대는 멀리 보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가? 기껏 날개가 있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러자 낮게 나는 새가 대답했다. “높은 곳의 구름은 멀리 바라보고, 낮은 곳의 산은 세심히 보듬는다네.”

#### 19. <정답> 4번

<출제 범위> 비문학 - 쓰기(조건에 맞는 글)

<난이도> 중

#### <정답 해설>

‘높이 나는 새’와 ‘낮게 나는 새’의 대화는 삶에서 중요한 것, 위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우의적 기법의 서술이다. 또한 “높은 곳의 구름은 멀리를 바라보고, 낮은 곳의 산은 세심히 보듬는다네.”에 대구도 나타난다.

<오답 해설>

- ① 낙엽의 패배는 봄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삶에 대한 통찰이 우의적으로 담겨 있으나, 대구의 기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토끼는 깡충깡충 뛰다.”에 대구가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한 단어인 자연을 닮는다면 어떨까.”라는 것은 우의적 표현이 아닌 직접적 표현이다.
- ③ ‘하늘과 소녀’의 관계에서 우의적으로 드러나는 삶에 대한 통찰이 무엇인지 명확하게는 전달되지 않는 글이다.(상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내 모습이다?) 대구의 기법도 드러나지 않는다.

문 20.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소설의 출현은 사적 생활이라는 개념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소설 읽기와 쓰기에 있어 사적 생활은 필수적인 까닭이다. 어쩌면 사적 생산과 소비 형태 탓에 사생활은 소설이라는 장르의 태동 때부터 소설의 중심 주제였는지도 모른다. 혹은 이와는 반대로 사적 경험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을 탐색해야 할 필요 탓에 소설이 생긴 것인지도 모른다. …… 사적 공간은 개인, 가족,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 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은밀한 공간이 실제 생활 속에 구현되도록 도왔다.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는 사람들의 이상이 되었고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의 존재 방식과 글쓰기 행태에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전의 지배적 문학 형태인 서사시, 서정시, 희곡 등과는 달리 소설은 낭독하는 전통이 없었다. 또한 낭독을 이상으로 삼지도 않고, 청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지도 않았다. 소설 장르는 여럿이 함께 모여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청중 개념의 붕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세기는 르네상스 시대와 17세기와는 달리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는 단일 사회가 아니었다. 따라서 청중이 한자리에 모여 동일한 가치를 나누는 일이 점차 불가능해졌다. 혼자 소리 내지 않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사적 생활에 상당한 의미를 두게 되었음을 뜻한다. ……

이러한 사적 경험으로서의 책 읽기에 대응되어 나타난 것이 사적인 글쓰기였다. 사적으로 글을 쓸 경우 작가는 이야기꾼, 음유 시인, 극작가들과 달리 청중들로부터 아무런 즉각적 반응도 얻을 수 없다. 인류학자,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언어의 의미는 그것을 쓸 때의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그러나 글쓰기, 그중에도 특히 인쇄에 의해 복제된 글쓰기는 작가에게서 떨어져 나와 결국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율적 담론을 창조하게 되었다.

현하였다.

- ③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를 요구하였다.
- ④ 사적인 글쓰기의 출현으로 작가는 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20. <정답> 4번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내용 일치)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마지막 단락에서 “사적으로 글을 쓸 경우 작가는 이야기꾼, 음유 시인, 극작가들과 달리 청중들로부터 아무런 즉각적 반응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사적인 글쓰기로 작가가 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서술이다.

<오답 해설>

- ① 두 번째 단락의 “서사시, 서정시, 희곡 등과는 달리 소설은 낭독하는 전통이 없었다.”라는 서술이나 “청중이 한자리에 모여 동일한 가치를 나누는 일”, 세 번째 단락의 “사적으로 글을 쓸 경우 작가는 이야기꾼, 음유 시인, 극작가들과 달리 청중들로부터 아무런 즉각적 반응도 얻을 수 없다.” 등의 서술을 미루어 보아 희곡 작가는 청중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낭독을 통해 교류하고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고자 하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 ② 글의 첫 부분에서 서술한 “소설의 출현은 사적 생활이라는 개념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소설 읽기와 쓰기에 있어 사적 생활은 필수적인 까닭이다.”에서 소설이 사적 공간에서의 책 읽기와 글쓰기가 가능해진 시기에 출현하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 ③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자기만의 내적인 것에 대한 추구는 ~ 사람들의 존재 방식과 글쓰기 행태에 변화를 요구하였다.”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다.

- ① 희곡작가는 낭독을 통해 청중들과 교류하며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고자 하였다.
- ② 소설은 사적 공간에서의 책 읽기와 글쓰기가 가능해진 시기에 출